



禮記

|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조민환** 교수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1강. 『예기』에 대한 기초적 이해



예기禮記



49편(編)으로 이루어진 유가의 경전.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고도 함

남녀칠세부동석 (男女七歲不同席)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한다는 뜻

「禮記(예기)」 「內則(내칙)」

예송논쟁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상례(喪禮)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

태묘(太廟)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종묘)



○ 전국시대 추나라를 뜻함



주희(朱熹) 1130 ~ 1200, 중국송대의 유학자

『주자가례(朱子家禮)』

: 주희가 유가(儒家)의 예법의장(禮法儀章)에 관하여 상술한 책



『주례(周禮)』: 주(周)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

『의례(儀禮)』: 중국 고대의 지배자 계급의 관혼상제 등의 예법을 기록한 책

하간(河間): 본명 유덕(劉德). 경제(景帝)의 아들로 태어나 BC 155년 하간(河間)의 왕으로 봉해짐

유향(劉向):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경학자이자 서지학자. 본명은 갱생(更生), 자는 자정(子政)



대덕(戴德)

서한 양(梁, 하남성 商丘) 사람. 자는 연군(延君)이다.
금문예학(今文禮學)인 대대학(大戴學)의 개창자

대성(戴聖)

한(漢)나라 시대의 학자. 자는 차군(次君)이고,
벼슬은 구강태수(九江太守)에 이르렀음. 숙부인 대덕(戴德)을
대대(大戴)라고 하고, 대성은 소대(小戴)라고 불리웠음

정현(鄭玄)
(127년 ~ 200년)

중국 후한 말기의 학자로, 자는 강성(康成)이며, 북해국 고밀현(高密縣) 사람이다.

정현의 『육예론 六藝論』

“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학(學)이다. 대덕은 기(記) 85편을 전하였으니 곧 대대례(大戴禮)이고, 대성은 예 49편을 전하였으니 곧 이 예기(禮記)다.”

전한 [前漢]

기원전 206년~기원후 8년

고조 유방(劉邦)이 항우(項羽)와 대륙 쟁탈 뒤에 세운 왕조로서 진(秦)에 이어서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왕조이다. 수도는 장안이었는데 그 위치가 후에 세워진 후한의 수도 낙양보다 서에 있어서 서한(西漢)이라고도 불림.

후한(後漢)

후한(後漢, 25년~220년)은 전한이 신나라의 왕망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한 왕조의 일족인 광무제 유수가 한 왕조를 부흥시킨 나라이다. 수도를 낙양에 두었는데 그 위치가 전한의 수도 장안보다 동쪽에 있기에 동한(東漢)이라고도 한다.

예기정의

禮 記 正 儀

책 이름. 모두 63권임. 본래 후한(後漢) 때 대성(戴聖)이 지은 소대기(小戴記:禮記) 49편(篇)에, 후한 때 정현(鄭玄)이 주(注)를 붙이고, 당(唐) 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붙였음.

공영달(孔穎達)

당(唐)나라 초기의 학자. 당나라의 태종(太宗)에게 중용되어 신임을 받고, 국자박사(國子博士)를 거쳐 국자감의 죄주(祭酒)·동궁시강(東宮侍講) 등을 지냄. 문장·천문·수학에 능통함.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위(魏)·촉(蜀)·오(吳) 세 나라가 정립한 중국 삼국시대(220~280)에 관한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중, 동이에 관한 열전

양촌 권근(陽村 權近)

여말선초[麗末鮮初, 고려 말 · 조선 초]의 문신·학자로 호는 양촌이다. 친명정책을 주장하였다. 조선 개국 후, 사병 폐지를 주장하여 왕권확립에 큰 공을 세웠다.



예기천견록 (禮記淺見錄)

고려 말 조선 초의 학자 권근(權近)의 『예기』 주석서



진호 1261 ~ 1341 [陳澔], 『여기집역』

원나라의 진호(陳澔)가 『여기』에 대한 당시까지의 중요한 주석을 모아 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책으로서 『여기』에 관한 주석서

■ 길사(吉事)

관의(冠義), 혼의(昏義), 사의(射義),
연의(燕義), 빙의(聘義)

■ 세자법(世子法)

문왕세자(文王世子)

■ 자법(子法)

내칙(內則)

상복(喪服)

증자문(曾子問), 상복소기(喪服小記),
잡기(雜記) 상·하, 상대기(喪大記),
분상(奔喪), 문상(聞喪), 복문(服問),
간전(間傳), 삼년문(三年問),
상복사제(喪服四制)



악기 [樂記]

예와 악의 관계 및 음악철학을 담고 있음

제도(制度)

곡례(曲禮) 상·하, 왕제(王制),
「예기」(禮器), 소의(少儀), 심의(深衣)

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

월령(月令), 명당위(明堂位)

제사(祭祀)

교특생(郊特性), 제법(祭法),
제의(祭義), 제통(祭統)

길례(吉禮)

투호(投壺), 향음주의(鄉飲酒義)

통론(通論)

단궁(檀弓) 상·하, 예운(禮運),
옥조(玉藻), 대전(大傳), 학기(學記),
경해(經解), 애공문(哀公問),
중니연거(仲尼燕居),
공자한거(孔子閑居), 방기(坊記),
중용(中庸), 표기(表記), 치의(緇衣),
유행(儒行), 대학(大學)